

봄 이사철인데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다

코로나 19 여파 광주 아파트 매매 37%, 전월세 47% 감소 외출자제·대면기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대출 막혀 곤혹도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데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아예 뚝 끊겼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전화 문의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집을 보러 오는 것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 거래가 얼어 붙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사철 대목을 누려야 할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근 ‘신천지발 코로나’ 여파가 덮치면서 아파트 거래가 종적을 감추는 정도로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 신도와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계약은 전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는 4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1건보다 37.1%(264건)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는 이보다 더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계약은 796건에서 422건으로 무려 46.9%(374건) 급감했다.
봄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대목으로 접어드는 시점임에도 ‘신천지발 코로나

여파’로 불안감이 재확산하면서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1507건에서 877건으로 40.35%(630건)나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사를 앞두고 자금줄이 막혀 곤혹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새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자금이 막혀 신용대출 등 긴급하게 자금을 구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달 이사를 한다는 양모(38)씨는 “기존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 자금줄이 막혔다”며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돼 급하게 대출을 받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특히 올 3월 광주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50세대나 예정돼 있어 현재 살

고 있는 집이 팔려야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집주인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 광주 입주 물량은 광산구 우산동 광주송정 재건축 중흥S-클래스 센트럴 1660세대를 비롯해 광산구 신창동 유담 유틸레스 리버뷰 473세대, 남구 송하동 광주호천1 A3블록 행복주택 264세대, 서구 마락동 상무 양우내안에 353세대 등이다. 오는 5월에도 북구 연제동 힐스테이트 1196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에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줄었고 거래도 뚝 끊겼다”며 “일부 중개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불황이 이어지면 중개사와 이사업체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5.26 (+25.93)	↑ 금리(국고채 3년) 1.05 (+0.02)
↑ 코스닥 650.19 (+8.46)	↓ 환율(USD) 1181.20 (-6.60)



여수 용천지구 ‘롯데캐슬 마리아’ 정당계약

5개동 550실 오피스텔 생활·교통·조망권 좋아

아시아신탁(위탁자 포브로스)이 시행·분양하고 롯데건설이 단순 시공을 맡은 여수 용천지구 ‘용천 롯데캐슬 마리아’가 6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용천 롯데캐슬 마리아는 여수시 용천동 1887-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7층, 5개동, 전용 28~70㎡, 총 550실 규모로 조성되는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별로는 ▲28㎡ 120실 ▲29㎡ 10실 ▲32㎡ 70실 ▲33㎡ 156실 ▲34㎡ 147실 ▲39㎡ 5실 ▲47㎡ 5실 ▲54㎡ 5실 ▲70㎡ 32실이다.
분양 전부터 실거주는 물론, 최근 해양 도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를 이어가는 세컨드하우스 투자 수요의 관심이 컸다. 지난 2일 청약휴 취약 접수에서도 평균 6.28대 1, 최고 14.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매제한이 없고, 계약금 100만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규제와 자금부담도 덜 수 있어 향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또 여수 용천지구의 높은 미래가치를

모두 누리는 핵심임지인 마리아 항만 바로 앞에 들어서 바다 영구 조망(일부 제외)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인근 300억 규모 마리아 항만(2022년 완공예정)과 오션링크파크, 첼린지파크 등 관광-레저시설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단지 주변에는 이순신공원과 해변문화공원, 이순신마리나, 오동도, 해수욕장 등이 있으며, KTX여천-여수엑스포역, 여수공항, 종합버스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해 생활·교통여건도 좋다. 2022년 6월 개통인 용천-소호대교도 가깝다. 영화관과 병원 등을 비롯해 단지 내 판매 시설도 함께 구성되면서 주거 편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로드(Road)형 단지배치를 통해 오션뷰 조망을 극대화했고, 옥상정원,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도 오션뷰로 꾸민다. 단지 인근 율촌1산단,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있고, 율촌2산단, 모도산단 등도 조성 중이어서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용천 롯데캐슬 마리아의 정당계약은 여수시 용천동 1880-6 견본주택에서 실시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6월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융권·혁신도시 기업들 ‘착한 임대인’ 동참

광주은행,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농어촌공·사학연금·aT도 참여

유용가를 넘어 ‘착한 임대인’ 행렬에 금융권, 나주 혁신도시 주요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5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은행 소유 부동산에 입점한 소상공인 27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 간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기현)는 광주 17개-전남 25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6개월 간 30% 인하한다. 전국 인하 대상 업체는 602개다.
인하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주거·영농임대료는 제외한다.
공사는 대상자에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했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사학연금소유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낮춘다. 인하 대상은 대전·부산지역 회관 2곳에 입주한 17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시설 임대료를 8월까지 최대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aT 화훼공판장 입주사 420여 개와 aT센터 입주 화훼산업 종사자, 식품외식업체 등 500곳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말에 비...“방수재킷 어때요”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7층 ‘바버’ 매장에서 준비를 막도록 방수 처리된 ‘비드널’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전KDN,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31일까지 공모

한전KDN이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한전KDN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의 역할과 업무 영역에 부합하는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내면 되며 공모분야는 ▲전력ICT 혁신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3개 분야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전KDN 홈페이지에서 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1건) 200만원, 우수상(2건) 각 100만원, 장려상(3건) 각 50만원이다. 또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도 100명에게 증정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신규 사업화와 한전KDN 혁신 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록부터 판매, 고객관리까지 전 과

정을 지원한다.
2014년 이후 매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한류 지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미디어(SNS)·모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이 제공된다.
또 터가-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는 지역 유명 쇼핑몰 내 한국관 개설과 입점 판매가 지원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